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시위, 국기모독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퇴진, 경찰에 폭력까지

극렬한 폭력 시위로 변질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국기모독이며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형법법상 범죄행위이다. 20대 젊은 남성이 강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태극기에 불을 붙인 뒤 취재 카메라 앞에서 흔들려 보이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대

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개 XX년, X년 테러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욕설을 퍼부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극렬 시위 세력에 과연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다. <2면에서 이어짐>

사설

성완중 엽관로비에 분노한 충청 민심

24일 늦은 밤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언제인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잊고 있었던 K씨는 인물이다. 그는 19대 총선 당시 선진당 핵심 당직에 있어 성완중 씨의 엽관(獵官)로 비로 인해 벌어진 선진당 공천 파동의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선진당 핵심 당직자 출신이라는 K씨는 '성완중 로비 실패에 앙심 자 살 공격 (4.21)'이라는 본인의 칼럼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 다면서 성완중 씨는 건실한 기업가도 참신한 정치인도 아니었다며, 급역을 배경으로 한 충청포럼과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십분 활용하여, 전 방위 로비로 인맥을 쌓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간 부도덕한 로비의 달인이라고 평했다.

K씨는 성완중씨 불법 로비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불과 3년 전인 2012년 3월에 있었던 선진당 공천 파동 전후에 펼쳐진 엽관(獵官)로비도 빼놓지 말고 철저히 파헤쳐 부도덕한 금권이 정치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K씨는 2012년 3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성완중 씨가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 이미 선진당 공천을 받은 변용진 씨를 비례대표 4번으로 밀어내고 지역구 공천을 따 낼 수 있었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배후 인맥과 로비를 파헤쳐

야 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성완중 씨의 자살 사건에 대하여 로비가 만능인 줄 알고 정치적 양지만 좇으면서 살아 온 부도덕한 로비스트 성완중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구명로비가 먹히지 않아 처음으로(?) 겪는 '로비 불통'에 따른 좌절감에 자살을 택하고 청탁을 거절한 인사에 앙심을 품고 당사자들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누군가의 조언

19대 총선 당시 선진당
핵심 당직자 성완중
엽관로비 심야 성토 전화

(?)으로 폭주를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천문학적인 자원의외국 관련 비리와 불법로비 혐의 수사에 대한 압박감과 로비실패에 따른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자살을 택한 성완중 씨 사건을 마치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억울하게 희생된 기업가'로 비호하는 움직임마저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부도덕한 금권 만능주의자의 로비 실패로 인한 자살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부패척결 행보에 탄력을 받게 할 전회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이완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대망론이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충청민심으로서 야권이 만약 성완중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네팔 대지진 사망자 3500여명 이상

7.8도의 강진 아비귀환 망연자실, 가족들과 이웃, 삶의 터전을 잃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마24:7-8)

지난 주 25일(토) 오전 11시 56분경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북서쪽 77km)에서 지진 발생. 강진 발생 후 8시간 동안 6.6규모의 강진을 포함 65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27일 현재 3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이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사망자와 아직 구조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6.6규모의 여진이 65차례나 발생했다고 한다.

미국지질조사국 7.8규모 지진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1934년 이래 네팔에서 발생한 최대 지진이라고 했다.(1934년 8.0규모 이상으로 당시 1만 700명 사망) 현재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1,457명이 집계되었지만 네팔 정부 관계자는 4500명이 넘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은 물론 도로까지 단절되고 시설물 붕괴, 통신 및 전기 부절로 현지 사무소, 정부관계자 등의 의사소통도 어렵다고 한다.

인구 100만의 수도 카트만두는 통곡의 바다로 변해있다.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갈라져 있고, 대부분의 도로가 광장은 건물 잔해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남성들은 곡괭이와 망치로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며 생존자 수색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따금 생존자가 발견된



곳에서 환호성이 들리곤 하지만 대부분 싸늘한 시신으로... 유족들의 통곡과 오열로 밤하늘을 울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긴급 네팔에 재난 구호품 물자 제공에 들어갔으며 우리 정부는 전날 네팔에 100만달러

(10억여원)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결정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보수)총회 2015 하계 수련회 공고

주제 : 일어나 빛을 받하라(60:1절)



이길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전주사랑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목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국교회



서재식 목사
용성향교회



박영석 목사
예본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전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일시 : 2015년 6월 8일(월)~10일(수) (2박3일 / 접수 오후 4시)
- 장소 : 아산 토비스콘도
- 주소 :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1-15
- 전화 : 041-541-5432

- 회비 : 1인 6만원(부부별도 추가)
- 노회후원 : 20만원 후원부탁
- 연락처 : 전예희 목사 010-7617-3331 /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목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교회
이사장 이길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
서울시 용인구 신사동 20-168
H.P 010-5325-389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시위, 국민은 분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퇴진, 경찰에 폭력까지

한 나라가 국가를 불태운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4년 텍사스 주 달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한 시위대에게 텍사스 주의 1심이 주 형법상 국기모독 죄로 징역 1년, 벌금 2000달러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미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연방대법원이 1989년 이를 확정했지만 당시 상원이 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낼 만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현재는 미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할 만큼 성조기를 존중하는 풍토가 확립돼 있다.

한국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어 국기의 의미도 더 각별할 수밖에 없다. 9.28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걸린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리던 감격을 노병(老兵)들은 잊지 못한다.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상징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태극기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말 18일(토)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폭력 시위에 참가한 몇몇 세월호 유족들이 유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유족의 의사대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시위를 계속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과 함께 24일 민주노총, 25일 공무원노조, 노동절인 5월 1일에도 양대노총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다. '세월호'를 방자해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단골 시위 세력의 대한민국 모독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국기모독죄'는 형법상 범죄다. 죄형법정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의 일부인 국기모독죄는 태극기를 '손상·제거·오욕(汚辱)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국기는 물론 무생물이기 때문에 모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국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태극기가 게양되면 뜨거운 가슴을 느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위험범이다. 많은 국민들이 불타는 태극기를 보면서 분노하고 모욕을 느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과정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국기훼손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태극기에 불을 붙여 훼손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이 남성은 지난 21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가를 모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와 울분으로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태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해도 많은 군중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까지 훼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태극기를 훼손한 자를 찾아내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TS, '2015 CTS 어린이 전도축제' 개최

지역교회 3곳에 교회학교 부흥 위한 전도축제 지원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어린이 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교회 3곳을 선정하여 '2015 CTS 어린이 전도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내달 9일, 16일, 30일에 인천 만석교회(담임목사 원종희), 수원 진흥교회(담임목사 박종권), 서울 흥은교회(담임목사 서동형)에서 각각 개최되는 '2015 CTS 어린이 전도축제'는 개그우먼 김성정을 비롯한 EL-LINE 선교회, 워십댄스팀 PK와 조수아 선교사의 복화술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회학교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교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TS 교회협력팀 조준은 부장은 "CTS 어린이 전도축제는 한



국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CTS의 섬김과 나눔 사역의 일환으로, 이번 전도축제가 불씨가 되어 교회학교 부흥,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CTS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교재인 <하미와 친구들>을 필두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영아동화 <Special Me>, 노래로 영어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Sing a

Verse>, 주일학교 예배 콘텐트 <KIDS WORSHIP>, 성경을 바탕으로 배우는 <창조한자교실>, 성경적 복음신앙을 양육하는 <복음주머니>를 통한 예수님의 어린이)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교사교육 및 교재보급을 진행해 현재 전국 40여 교회와 160여 해외선교지에 CTS 교회학교를 개설 및 운영하여 교회학교 부흥과 미자립 교회 회복을 위해 힘쓰는 바 있다. (CTS 교회학교 개설문의 : 02-6333-2525)



희생자는 기억하고 유가족은 잊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만 하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나? "죽은 자식을 영접 앞에서 웃으며 사발 인종 사진 찍는 유가족" "대통령 테러하겠다는 유가족(?)" 시위를 부추기는 종북세력들 / 김종필 사회평론가 진실의 소리에 서...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이 추모를 위해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팽목항에 있던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팽목항을 떠났다고 한다. 안산합동분향소도 사정이 비슷했다. 국무총리와 여당 의원들은 유가족들의 저지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한다.

일부 유가족들의 행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안산시 주위의 합동 추모식도 유가족들이 취소해버렸다고 한다. 유가족들은 진정 추모의 의사가 있거나 한 것일까? 설령 실인을 저지른 자가 찾아와도 상주가 장례식장을 폐쇄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물며 아무리 미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추모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추모이다. 이런 대통령의 추모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모욕을 넘어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대통령은 **전체 국익을 위해 '結論'을 선언해야**

도대체 대통령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사고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유가족이 무슨 비술인가? 이들의 행태는 참고 그냥 둘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오나오나 해줬더니 할 아버지 수염까지 뽑는 버릇없는 아이와 다르다. 사고 1주기를 맞이까지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 감정과 표현을 자제하고 슬픔에 동참했지만, 밑바닥 여론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세월호 사건을 박근혜 정부 발목잡기, 그리고 대한민국 언어치기의 묘수로 활용하려는 극소수 선동세력들과, 지나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선동에 휘둘린 유가족들만 남은 것 아닌가? 국민 대다수 여론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슬픈 일이고 제대로 구조를 하지 못한 정부도 많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 정부가 온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 이제 그만 하자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의 원인이 사실상 다 밝혀진 마당에 나라를 흔들 목적이 아니라면 진상조사는 무엇이고, 선체 인양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일부 유가족만을 위한 진상조사요 끔찍한 기억 재생산을 위한 선체 인양이 아닐 수 없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돈보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데 맞다. 그런데 막대한 세금을 아무리 퍼 부은들 살아 돌아올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더 이상 밝히려 진실을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 유가족도 언젠가, 그리고 정부도 언젠가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이다. 저야 할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지만, 잊지도 않은 여론에 휘둘러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과다 가해방상'에 시달린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 민들이 보기에 진짜 정부가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마

저 들만큼 지나치다.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퇴임하는 날까지 이 문제로 시달리며 허송세월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국소수 유가족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세월호의 종결을 선언하고 국정정에 전력투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형사고의 처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에 떠나다지만 잘못 남긴 선례로 인해 죽을 때까지 발생할 모든 사고를 평생 세금으로 뒷감당을 해야만 한다면, 국민들은 또 무엇인가?

국립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해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았던가? 대통령과 정부가 유가족의 고통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전체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진짜 정부가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마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헌법 등록번호: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신윤리규정을 준수한다
대표: 이재갑 이사장: 조경수총무: 사정: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jtntv@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070) 8230-0034
▶H.P: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교회당 매매

서울시 노원지역
매매가격: 23억원
대지:313.5㎡(94평)
건평:894㎡(268평)
층수:5층
용도:1~3층
(상가.월 임대료 440만원)
4~5층(예배당.교육관)
보증금:1억7천만원
대출:우리은행 8억5천만원

연락처:010-2868-7302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황원찬 박사
(대신석주총회 총회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 정신 바탕에 인재육성

세상을 움직이는 신학대학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본 신학대학원대학교는 대한원격신학연구원을
개원하고 많은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석수동)
☎031-470-3333, FAX 031-473-5947
http://www.dtu.ac.kr

성경세미나

◆ 회개복음 ◆ 성경통독
◆ 사복음서의 영적비밀



장만천 목사



방요셉 목사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 4시

한눈으로 보는 성경역사(중)

주소: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7번길 5 (만수동)
등록전화: 010-8733-5411 010-9769-7991
장소: 주영광교회

에녹부흥신학원



http://kiea.onmam.com

주식 무료 제공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 오후 2시(학술원)
장소: 등불교회, 예수능력치유센터
주소: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문의: (사무간사) 010-6778-0651

에녹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모집
수업일: 매주 금.토 오전 10:00 부터~
몰찬양(무용, 국악, 찬양) 매주(목) 오전 10:00~

예장합동 서노협, 대표회장 이춘복 목사 추대

상임회장 배재균 목사, 최운진 장로, 상임총무 장순직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서북부지역노회협의회(이하-서노협) 제27회 정기총회가 4월 17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에서 개최되어 서노협 신임대표회장에게 이춘복 목사, 목사상임회장 배재균 목사, 장로상임회장 최운진 장로, 상임총무 장순직 목사를 추대하고 그 외 임원들을 선출하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대표회장 권순직 목사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장로상임회장 송병원 장로가 기도문, 서기 장순직 목사의 성경봉독(갈5:25~6:2)하고 남현교회 마리아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감동적인 찬양에 이어 부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성령으로 행하면"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남현교회 색소폰선교단의 특별연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증경회장 김용선 목사가 "나라의 평안과 경제발전을 증경회장 이태선 목사가 '총회 발전과 성장을 증경회장 김용선 목사가 '세계선교와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실무회장 배재균 목사는 '서북지역노회협의회 발전과 34개 노회와 3800교회를 위하여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 증경회장 최재우 목사가 격려사를, GMS 이사장 김재호 목사, 총회총무 김창수 목사가 축사했으며, 명예회장 오정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대표회장 권순직 목사의 사회로 제27회 정기총회를 선언한 후 임원선거에서 서노협은 증경회장 및 각 노회대표가 공천위원 모임을 갖고 대표회장을 비롯해 임원을 선출하고, 발표한 결과 이춘복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어 그 외 상임회장과 상임총무 및 임원들을 선출 발표했다.

신임대표회장 이춘복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서북지역노

회협의회와 모든 총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 대표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복 대표회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총회와 노회, 신학교를 위해 힘써서 일할 계획이며, 본 회의회는 총회 내에서도 34개 노회 3800교회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가장 많다고 했다. 이러한 본 회의회를 선배들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으며, 아울러 총회를 위해서도 힘써 협력해 왔다고 했다.

또한 서북지역노회협의회는 대표회장을 지내신 분들 중에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이 많으며, 이번에도 본 회의회에서는 네 분이 부총회장 후보로 선정되는 등 비전이 있는 회의라고 했다.

이춘복 대표회장은 '선배님들이 쌓아온 전통과 모든 것들을 이어 받아서 더 나은 서노협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특별히 서노협은 무지역노회로서 이북에



서 목사님들이 월남하여 세운 교회들이며 부흥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장 이춘복 목사는 서노협은 앞으로 있을 통일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합동교단이 더 큰 교단으로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임원들과 서북지역 모든 교회들과 하나가 되는데 힘을 거머쥘 소감을 피력했다.

서북지역노회협의회 제27회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 이춘복 목사(남현교회 담임) 상임회장 : 배재균 목사(천호동원교회 담임) 상임회장 : 최운진 장로(호경제일교회 시무) 상임총무 : 장순직 목사(드림교회 담임) 서기 : 김영범 목사(기쁜우리교회 담임) 부서기 :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 담임) 회의록서기 : 변종진 목사(늘푸른교회 담임) 부회의록서기 : 정영기 목사(늘사랑교회 담임) 회계 : 윤여웅 장로(창성교회 시무) 부회계 : 한상원 장로



예장대신(석수) 제21차 중부노회장 광동훈 목사 연임

노회장 광동훈 목사 부노회장 장선진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석수)중부노회(노회장 광동훈 목사)는 지난 4월 21일(화)11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뽕엘교회(강정자 목사)에서 제21차 춘계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노회장 광동훈 목사를

만장일치 유임시켰으며 부노회장은 장선진(은혜)목사가 선출되었다.

노회장 광동훈 목사(행복의집교회)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이영철 목사(애민교회선교사)가 기도문, 성경 엮 1:4절을 주제로 노회장 광동훈 목사는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노회장 광동훈 목사는 성노회가 뽕엘교회(강정자 목사)에서 개회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회장은 설교에서 오늘 여러

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첫째 오늘 부르심에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라고 했다.

둘째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자면서 목회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목회자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겸손한 목회자가 적다면서 우리 중부노회 목회자는 겸손한 목회자가 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사랑으로 화합하는 목회자가 되자면서 사랑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중부



노회가 되자고 했다. 넷째, 평안함으로 변함없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부노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노회장 광동훈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을 마치고 3부 중부노회 제21차 춘계정기회를 개최하고 인사무처리에 들어가 모든 보고와 안전을 다룬 후 임원선거에서 총대선원의 박수를 받는 가운데 노회장 광동훈 목사가 유임됐다.

CTS, '제1회 온라인 성경필사 대회' 시상식

1,500여명 참가하는 등 큰 호응 속 마무리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총 3개월간 개최된 '제1회 온라인 성경필사 대회'가 오는 4월 10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새해 첫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뜻 깊은 취지로 개최된 본 대회에는 한국교회 성도 1,500여명이 동참하고 43명이 성경 1독 이상의 필사를 성공하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성경 3독 필사로 성경필사왕의 영예를 얻은 임성은 전도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고령상을 수상한 김학도 성도는 "여든셋의 고령에도 침착한 눈을 비벼가며 1독을 완료했다. 2독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 감탄케 했다.

그 밖에 이해경 성도는 "성경필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났다. 입원 중에 계시던 어머니가 병을 회복하셔서 퇴원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동적인 간증을 나눴다. 대회 기간 중 1독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한 최도웅 성도는 "대회는 끝났지만 부활절부터 성탄절까지 100% 필사의 목표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은혜를 간증하는 진정한 믿음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주었다.

CTS는 △ 성경 필사왕 1명 △ 성경다독상 10명 △ 스피드상 3명 △ 최고령상 1명 △ 행운상 20명 △ 결단왕 10명 △ 응원왕 10명 을 선정하여 총 55명의 수상자를 CTS

앱을 통해 발표하고 디지털피아노, 전자 성경, 1독 인증패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했다.

한편, 본 '제1회 온라인 성경필사 대회'는 2009년부터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활용하고 있는 'CTS 온라인 성경타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대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타자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 시흥시 특별치안현장 방문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저녁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정왕지구대를 방문하여 지난 4.10부터 경기 서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특별치안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의 경찰관을 격려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인 정왕시장 일대를 도보 순찰을 함께 하며 주민접촉형 순찰을 활성화하고 거동수상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감치안을 높이고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시흥시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정왕동 방범환경 개선(CPTED)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를 강조하면서 경기 서남부권 여타 경찰서에서도 공무원·민·관 등 범죄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저녁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정왕지구대를 방문하여 지난 4.10부터 경기 서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특별치안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의 경찰관을 격려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인 정왕시장 일대를 도보 순찰을 함께 하며 주민접촉형 순찰을 활성화하고 거동수상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감치안을 높이고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시흥시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정왕동 방범환경 개선(CPTED)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를 강조하면서 경기 서남부권 여타 경찰서에서도 공무원·민·관 등 범죄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장[개혁]총회 2015년 하가수련회 공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시133:1)

주제 : 영성회복으로 담합된 개혁총회 되자



김정열 목사
중부노회(뽕엘교회)



강성희 목사
경전노회(성광교회)



장한국 목사
대안노회(주사랑교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우리교회)



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



임순중 목사
대전노회(문성교회)



김재길 목사
부산노회



박민규 목사
대전노회(새생명교회)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 일시 : 2015년 6월 8일(월) - 10일(수) 2박 3일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사당골길43번(속초 금호리조트)

- 장소 : (속초 금호리조트) ☎ 장소문의 033)636-8000,
- 연락처 : 서기 : 010-6266-1331 ● 회계 : 010-9621-9627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5 (읍내리 613-3)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

■ 인물탐방 ■



소경의 눈이 열리던 날, 정대성 목사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았네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소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마15:30~31)아멘

주일에배는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는 날이면 어데서 알고 오는지 눈먼 사람, 각종 암 환자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삼성중앙교회는 매일 같이 끊임없이 기도소리가 멈추지 않는 성전이다. 담임 정대성 목사는 매일 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라며 기뻐한다.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는 부부이다. 주일예배도 정대성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임찬미 목사는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두 분 목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부천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한분이 본 교회에 대해 소문을 듣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정 목사를 찾아왔다. 그 맹인은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왔고, 급기야는 합병증으로 인해 맹인이 되었는데, 눈을 뜨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지인을 통해 삼성중앙교회 정대성 목사를 소개 받고 한 손에는 기다란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팡이로는 어느 곳을 향해 가야할지 전전하던 차 경찰서에 연락을 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왔다고 했다.

눈 뜨는 게 소원이었다는 정씨(60대)는 예배를 드린 후 성도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한 다음 정대성 목사는 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손을 떼는 순간 소경된 그가 앞이 보인다고 말하고 안수기도를 한 정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안경을 쓰셨네요 키가 작으시네요, 성도들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른 날 연락을 받고 부인이 찾아왔으며 그 교회의 권사이다. 이날 함께 기도회를 가진 후 다시 눈을 만지며 기도를 하고 손을 떼자 안수한 정 목사의 넥타이의 색깔을 알아보았고,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쁘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감사를 드러내며 할렐루야를 외쳤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대성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은 부족한 중을 통하여 37명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렸다.

이 외에도 정대성 목사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 한분은 강남에서 암병으로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대성 목사를 만나 안수를 받고 암병에서 완치되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고, 많은 분들이 새 삶을 얻었다고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年 7만명 세례... 軍선교 전진기지 '논산 연무대교회' 30일 착공예배

현 2500좌석 5000석으로 건축비 약 130억 소요... 후원금 모금운동 가속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사진)와 민·군 공동 건축위원회(위원장 김진영 장로)는 14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신축부지에서 오는 30일 건축 착공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2012년 10월 기공예배를 드린 지 2년6개월 만이다.

뉴스미션 유영대 기자에 의하면 군선교연합회는 "23일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30일 오후 2시 착공예배를 드린 뒤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 내년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예배당이 완공되면 현재 2500석인 좌석이 5000석으로 늘어난다. 3층 규모로 예배당 선교관 목회실 행정사무실 식당 등 각종 시설이 갖춰진다.

연무대교회의 새 예배당 건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름에 따라 건축 후원금 모금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비 약 130억원은 군선교연합회와 군목 파송 교단, 군선교



회원 등 모두 후원으로 마련된다. 군선교연합회 측은 건축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착공예배와 함께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군선교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교회 연합 건축위원회, 군종목사 파송 11개 교단, 민·관 공동 건축위원회,

한국군종목사단, 육군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KMCF),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연합회(KVMCF), 국군장로연합회 등이 연무대교회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

착공예배를 앞두고 기도 열기도 뜨겁다. 연무대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착공예배가 열리는 30일까지를 특별

새벽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군 선교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 또 이 기간에 40개 조각으로 된 연무대교회 조감도 퍼즐을 마련해 하루에 한 개씩 퍼즐을 맞춰나가며 새 예배당 건축 의지를 다지고 있다.

1987년 지어진 연무대교회 예배당은 협소한 환경조건과 노후화로 주일예배를 3부로 나눠 드리고 예배시간마저 빠듯해 참석하는 장병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군목 파송 11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2010년 1월 22일 교단장협의회 모임에서 연무대교회의 상황을 보고받고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새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했다.

김종천 연무대교회 목사는 "한 해 12만~13만명이 훈련받는 육군훈련소에서는 6만~7만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며 "새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되면 보다 많은 장병들이 연무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교 130주년 한국기독교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행사

8박9일간, 3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과 대관령 양떼목장 견학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행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몽골, 필리핀, 베트남 1, 2집, 태국, 중국 등 5개국 83명의 다문화가족 부모가 입국해 8박9일간의 상봉일정을 가졌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주최하고 예장통합, 백석, 합동개혁 등 주요 교단과 세기총(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이운재 목사), 성산호나눔재단(이사장 최성규 목사) 등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130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해져 세계에 유래 없는 부흥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복음의 빛진 자로서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빛을 갖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다.

이번 행사는 21일(화) 오전 3시55분 몽골 친정부모 입국을 시작으로 오전 9시30까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각 나라별로 초청된 가족 모두가 예정대로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나온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돼 이들 부모와 다문화가족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한 양병희 대표회장을 비롯, 각 교단 총무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입국장에서 간

단한 입국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 후 8대의 버스에 나눠 탄 3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은 대관령 양떼목장을 거쳐 숙소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여장을 풀었으며, 개회예배 겸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신광수 목사(한교연 사회문화국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한철인 목사(예장 통합 이주민선교분과장)의 기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대회사, 최성규 목사(성산호나눔재단 이사장)와 김요셉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박광철 목사(기획위원)가 행사취지를, 신광수 목사가 다문화가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총회장), 고시영 목사(서울장신대 이사장), 나종민 실장(문화체육관광부)이 각각 축사를 전했으며, 다문화 가정을 대표해 몽골 임호제씨, 베트남 이승연 씨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대회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문화가정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비록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회장은 이어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순혈주의 전통이 강하

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여 이 땅에 다문화가정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 매우 힘들었을 줄 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를 향해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하는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이날 환영만찬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김희신 목사(피어선 총합 총회장)가 기도한 후 개그맨 김성규 씨의 사회로 어린이 민요 중창단, 신촌타이거즈, 루카스 밴드, 걸그룹 Bay.b 등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김병찬 목사(예장 한영 총무)가 만찬기도를 한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었다.

22~23일은 조식 후 숙소를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 속초 엑스포타워, 아바이마을, 강릉 오죽헌, 경포대 등을 관광한 후 22일 오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 도착해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

개인별로 6일간 가정 방문 시간을 보낸 다문화가족과 부모들은 29일(수) 오후 2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모여 환송식을 겸한 예배에 참석한 후 인천공항으로 출발, 각 나라로 돌아갔다. 이날 환송식에서 김춘규 사무총장의 사회로 문원순 목사의 기도, 이영훈 목사의 설교에 이어 양병희 목사의 환송사와 정서영 목사의 인사말, 기념품 전달, 다문화가족 대표의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시민연대 특별 성명서 전문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김진신 목사)서 발표한 성명에 대한 답변

기독교시민연대 특별 성명서

연대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1. 기독교시민연대는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김진신 목사)서 발표한 성명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2. 기독교시민연대는 기독교의 부패를 정화 감시 조사하고 척결하는 단체이지 이단을 해재 하거나 규정 하는 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기타 각 교단 이대위와 기독교신학사상검증위원회, 기독교리서치연구소, 한국목회연구원, 국제복음주의신학회, 한기총 이대위와 한교연 비수위 등의 단체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학자들이 신학검증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으며 이단 감별여부는 이들단체들의 영적 권위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의 영적 권위를 기독교시민

3. 기독교시민연대는 가짜이단이다 진짜이단이다 감별하는 단체가 절대 아니며 약자인 안식일재림교회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억울하다 하여 그들 단체들의 무슨 억울한 내용과 소리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시민연대는 그동안의 모든 이단시비 스캔들을 양파껍질 처럼 벗겨내어 옥석을 분명히 가리고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문제 결론은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신학전문가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들, 각 교단 이대위서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어 주시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기독교시민연대는 안식일재림교회를 신학적으로 재평가 할 수 있는 공식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연대가 "제 16회 정기 신학포럼"으로

서 주관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4월 22일 "안식일재림교회 이단시비 포럼"은 전세계적으로나,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라 하고 한국에서만 이단이라고 하니 무엇이 잘못 되었나 하고 기독교신학사상검증위원회, 기독교리서치연구소, 한국목회연구원과 재검 할 수 있는 자리를 주관하여 마련해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에 지난간 30여년간 안식일재림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각종 불합리적인 요소들과 이단사상꾼들과의 논쟁과 스캔들 재료가 있어서 안식일재림교회가 무엇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가 하고 그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1차 포럼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2차 공동조사위원회서 연구토론회를 거쳐서, 3차 안식일재림교회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에서 불합한 이단사상꾼들과 이단브로커와 안식일재림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스캔들을 재조사 하여 한국교회의 부패의 고리를 끊고 척결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강력한 교

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5. 기독교시민연대는 객관적인 단체들과 연합하여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식일재림교회의 스캔들을 부패척결 차원에서 재조사 하는 것이며, 공동조사위원회는 어느 단체나 지위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기독교시민연대가 하는 일을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6. 기독교시민연대는 한교연 및 한기총과 함께 이단사이비집단을 철저히 배격하고 대응하여 한국교회를 적극 보호하는데 힘을 다집합니다.

2015년 4월 26일.
기독교시민연대 대표 김경직 목사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 갖고 참여해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동경성시화운동 조찬기도회에서 설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지난 21일 오전 7시 동경 요도바시교회에서 열린 동경 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이창길 목사, 오영석 장로) 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통해 동성애, 종북문제 등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동경성시화운동 홀리클럽 12주년 기념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동경을 방문한 동경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이창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 목사는 “동경 시내를 걸다가 서점을 잠깐 들렀는데 진열대에 음란물 잡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며 “서점에 이런 잡지들이 전시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크리스천들이 평안하고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라도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반사회적이고,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월 19일 서울시 청암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

인 제16회 쿼어문화축제의 개막집회를 열 수 있도록 서울시청이 사용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동성애를 소재로 한 방송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일반 언론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3년 3월과 4월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철회하는 운동을 벌여 철회를 시켰다.”며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지도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스톱트 목사가 초안한 로잔언약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인마다 전도하고, 시민마다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마다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도 최우선의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도시에 있는 큰 교회와 작은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힘을 모아서 성시화운



▲좌측 두 번째 설교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개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 봉사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충만할 때 가능하다.”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오직 성령 능력을 힘입어 사방이 벽으로 갇혀 있는 것 같은 일본 선교의 벽을 뚫고 그 안에 갇힌 1억 2천만명의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고 도전했다.

동경성시화운동본부는 격주로 조찬기도회를 갖고 있다. 공동회장

이창길 목사는 일본 한국YMCA 이사장도 맡고 있다. 공동회장 오영석 장로는 재일민단 부단장과 신주쿠상인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한 부회장 정순영 목사는 동경YMCA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사무총장 김종기 목사와 오영석 장로, 신대영 장로도 동경YMCA 이사를 맡고 있다.

이날 조찬기도회에는 이창길 목사, 오영석 장로, 정순영 목사, 김신호 목사, 최영호 목사, 정규화 목사, 신현석 목사, 신대영 장로(동경성시화운동본부 회계), 박영길 목사를 비롯한 성시화운동 멤버들과 일본인들도 참석했다.

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네팔 대지진 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다. 무엇보다 네팔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통곡하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담긴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구호인만큼 전 세계 각국이 초월적인 인류애를 발휘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연대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회도 기도와 헌금 뿐 아니라 현지 이재민 구호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현재 네팔에는 우리 교인 650여 명과 히말라야 등반객 등 다수의 한국인이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별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

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네팔 대지진을 타산지식 삼아 국가적인 재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안전불감증에 빠진 사회 병리현상 치유를 위해 정부와 종교계, 사회단체가 합심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5년 4월 27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성명서]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재고하라

메일 내용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의식주에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 등이 반영되어 표현된다. 최근 대통령의 중동 순방 후, 국내업체의 할랄식품 산업진출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분명

한 것은 음식과 관련하여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접근하다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랄’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허용된’의 뜻으로, 이슬람법에서 허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이슬람법에 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 부르는 것이다. 할랄식품은 음식에 이미 이슬람 문화와 정신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할랄식품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슬림들은 세계적으로 전락을

교육부, 복지부는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을 ‘아동 학대’로 보는가?

사이비/이단들의 무분별한 ‘종교도구화’ 강요와는 구별해야

교육부가 얼마 전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협,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젓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4조 1항에 보면,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오히려 3항에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

거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보면, 종교적 항목은 있지도 않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동법 제3조 7항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3조 7항의 정신적 폭력을 근거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이를 그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동의 정서학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자의적으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학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법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녀들을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에 강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건전한 종교에 대한 권장을 강제화 시키고 그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망국적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14조 2항에 보면,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30조에 보면,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엔도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종교권장을 ‘아동학대’의 범죄행위에 포함시키면,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 학부모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그 아이를 범죄와 연루시키는 결과가 되고 만다. 학교가 범죄의 장소가 되는가? 이 정도가 되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학교를 꼽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악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 아이에게 건전한 종교와 신앙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 항목에 넣는다면, 그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 제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한교연, 네팔 대지진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청난 재난으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전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히말라야 산간의 작은 나라 네팔을 강타해 수 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엄청난 재난으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무엇보다 네팔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통곡하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담긴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구호인만큼 전 세계 각국이 초월적인 인류애를 발휘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연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이어 “한국교회도 기도와 헌금 뿐 아니라 현지 이재민 구호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네팔 국민들과 함께 합시다

진도 7.8의 대지진이 히말라야 산간의 작은 나라 네팔을 강타해 수 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엄청난 재난으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

시기를 바란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다. 무엇보다 네팔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통곡하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담긴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구호인만큼 전 세계 각국이 초월적인 인류애를 발휘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연대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회도 기도와 헌금 뿐 아니라 현지 이재민 구호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현재 네팔에는 우리 교인 650여 명과 히말라야 등반객 등 다수의 한국인이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별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

세워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렵은 이미 상당부분 무슬림화 되어 있다. 이들은 결집력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도록 강요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이슬람채권과 관련한 수 쿠르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교계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들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슬람 문화와 정신을 따르며,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할랄식품에 대해서 예외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슬람 세력의 다양한 확장 방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을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오상현 목사
부 목 사 : 오정선 신길현 오성운
파송신교사 :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윤기
김진희 김원갑
협동목사 : 장정화(은퇴) 서기욱
전 도 사 : 추정의 배순단 진안순 윤영옥
사무장로 : 고재현 송영문 천은상 정승만
이현필 주종필 김경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원복(의주직)

은퇴장로 : 노남규
협동장로 : 이병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영북향동)
TEL : (061) 272-4908, FAX : (061) 278-0693
남각매배당 : 목포시 남각2로 52번길 남각크리스찬들 301
TEL : (061) 287-0692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에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요일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8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찬양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요일 6시

담임 장한국 목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초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2015 표어 :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새벽 예배 : 새벽 6:00
주일낮예배 :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밤예배 : 오후 7:30
금요기도회 : 오후 7:30

교회 : 경기도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66(화정동5층)
화정버스터미널/전철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 031)974-7091

요한계시록1장 강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8)

성령 안에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요한

두 증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두 증인들이 꺾박 받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는 것을 거쳐서 그 이상으로 죽을 이후에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됩니다. 두 증인은 순교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증인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예언하는 자가 되어 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144천 명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 이미 상고한 “너희 형제와 환란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에서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실제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 때는 재림 주님이 직접 정사와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정부가 됩니다. 요한이 여기에 동참하는 자요 또 계 1:1의 “그의 종들”도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로써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루하루를 자신의 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100% 그 날의 주인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시간을 허락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데에 요한이 인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통째로 주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고 끝내버려야 했는데 도리어 구원 받고 여별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데 나의 날로 쓰면 그것이 도둑입니다. 주님의 시간, 날을 도둑질 한 것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함은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왕과 같아서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영향 끼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마음·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 속에 상위가 관인 영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한국 목사
개혁총회 부총회장
주사랑교회 담임

그

리고 성령이 내 영 속에 와서 영이 성령을 모시는 처소가 되어지면 내 영이 성령에 장악되어 성령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생각에 의해 움직여 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잡혀있게 되면 우리의 몸도 성령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만약 성령이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99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오면 100% 성령 충만한 것인가요? 성령은 하나님이며 한 존재이시므로 개수로 따져서 충만함을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그를 주장하여 성령의 영향 속에 이끌려 지배당하고 있는 요한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의 자유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로, 주님이 주신 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으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뒤에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나팔소리를 듣게 한 것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11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페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12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본문은 이미 4절에서 풀어 드렸습니다. 일곱 금촛대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혼동이 되어서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자를 받았습니 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사도요한 당시에 있었기에 그곳에 편지하라고 하

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고 옛 유적으로 교회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출신들이 대를 이어 그곳에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그 후대 사람들이 지은 기념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편지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계시록 2·3장의 일곱 금촛대 교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같다고 봄으로써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도 같이 멸망했으므로 계시록은 끝났다고 여깁니다. 지금 계시록이 끝났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계 1:7의 주의 재림이 계시록의 총 주제입니다. 또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록” 포스트 “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타나임”인데 계시록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또 계 1:12의 “일곱 금촛대”는 스가라 4장에서 정확히 풀어주고 있다고 이미 상고 하였습니다. 스가라 4장의 일곱 금촛대는 그 꼭대기에서 금 기름이 스스로 흘러나오고 그 금 기름으로 발리운 두 올리브나무 가지가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속 4:10에 스룹바벨 손에 일곱이 있는데 그것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 눈이 성경 어디에 또 나오니까?

계 5:6에 일곱 눈은 예수님이 온 땅에 보낸 일곱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기름으로 발리운 자들, 즉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계시록 이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시록이 나오면서 계 11:4에 두 증인이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두 증인들이 일곱 영을 받아야만 환란 날에 예언의 권세로써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나 악한 자들의 어떤 공격이나 죽이는 권세에도 불사신의 몸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두 촛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증인이 나오는(배출되는) 교회가 금촛대 교회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계 1:1의 “그의 종들” 이고, 계 7:3-4의 이마에 인침 받은 하나님

의 종들 곧 144천 명이고, 계 11·14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들을 배출하는 금촛대 교회는 요한 당시 초대교회 때의 일곱 교회가 아닙니다. 두 증인들은 주의 재림 직전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죽임 당하는 그 시점에 둘째 회인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될 것을 말하셨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요한 당시 초대교회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을 들어갈 때 이 부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일곱 교회와 12절의 일곱 금촛대 교회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곱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금촛대 교회는 금 기름 발리운, 즉 일곱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 교회의 사자며 두 증인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곱 영이 배일에 싸여진 것 같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금촛대 교회에서 마침내 일곱 영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여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13절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들었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개의 촛대 가운데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가운데”의 헬리어 μέσος(메소)는 줄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한 줄기에서 일곱 가지로 뻗어있는 것이므로 일곱이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줄기가 되는 예수님께서서 일곱 가지가 솟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고 다른 여섯 교회들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일곱 금촛대 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해당되어지고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하여 일곱 교회가 정부 내게 해당되어지게 하셔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과정을 거쳐서 전체를 섭렵하듯이 일곱 금촛대 교회는 단계별로 계시의 과정인 것입니다.

계 1:1의 “그의 종들”에게 일곱 금촛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일곱 금촛대 교회가 “그의 종들”에게,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한 줄기에 일곱 가지가 뻗은 것과 같은 일곱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요한이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발까지 닿은 옷을 입고” 계시합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입니다(출 28:2-4).

(다음호에 계속)

· 칼럼 ·

효

효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길 원합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효’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효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 : 18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근거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효’와의 연관성을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천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 등에 힘쓰도록 권유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나 집회, 기도원 등에 다녀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정에 돌아가서 잃어버리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정작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효(孝)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 6장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곳은 바로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오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엡 5: 22-33), 자녀와 부모(엡 6:1-4)와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에 나왔는지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실천하는 곳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내 마음,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행해

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예수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처럼 가정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효(孝)입니다. 효(孝)는 가장 위대한 스승인 부모에게서 훈련되어 집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부부가 그리스도안에서 서로 주께 대하듯 복종하고, 사랑하며 귀히 여겨며 나아가는 생활 모습 속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효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효는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부모, 행복한 부모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지게 됩니다. 남편이 미우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웬지 미워진 적이 없으십니까? 아내가 미우면 웬지 장인, 장모님도 싫어진 적이 없으십니까?

따라서, 바른 효의 시작은 행복한 부부가 되어주는 것, 행복한 부모, 또한 성숙한 부모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몸본이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효의 기본원리를 배우며 훈련되며 습득되어 집니다. 효의 근본은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에서 배웁니다!

효를 가르치는 곳은 외부교육 기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효의 교육장소는 바로 가정이며,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부가 서로 주께 대하듯 순종하며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살아 있는 효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경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죄를 자복하여
성경: 잠언 28장 13절 찬송가 380장

본문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죄의 수렁에 빠져있 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거나 더 나아가 부인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까지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의 순간은 기쁨과 유익을 줄지 모르 나 그 대가는 죄는 도망가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 남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죄를 멀리 하고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 개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세워나갑시다.

제목: 항상 경외하면
성경: 잠언 28장 14절 찬송가 89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마음을 완악하는 자를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지 죄에 대해 민감하게 애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노력을 하는 자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경 외라는 의미는 단순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 아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려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악한자의 압제 속에서
성경: 잠언 28장 15절 찬송가 400장

본문의 가난한 백성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 뿐 아닌 누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백성을 압제하는 관리란 강압적이고 무자비하고 무감 각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사자의 입과 주린 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 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도 이와 같을 수 있

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외에 주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하는 자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과 국민을 위한
성경: 잠언 28장 16절 찬송가 455장

본문의 무지한 지리자의 문자적인 뜻은 이해 가 부족한 왕은 큰 압제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왕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 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통치에 필요한 지혜 와 신중함을 결여하여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억압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그들의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아 갈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 하고 열방 가운데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제목: 영적 생명을 주는 사람
성경: 잠언 28장 17절 찬송가 521장

본문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피 흘림을 주도 했거나 방관한 자가 결국 영과 육간에 징벌을 당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징벌 받기로 된 자의 곁에 머물거나 도울 뜻을 품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도리어 해만 당할 뿐이라는 것 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인 성령의 사 람들이 많고 나 자신 역시 영적인 사람으로 깨 어 주위에 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 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한 길만 가는 자
성경: 잠언 28장 18절 찬송가 287장

본문의 성실히 행하는 자의 의미는 단순히 순 결한자, 흠이 없이 걷는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한길만 가는 자 즉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령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 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 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 습니다. 번덕부리지 말고 굳센 믿음과 하늘의 소 랑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노력의 결과
성경: 잠언 28장 19절 찬송가 502장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를 본문에서 는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피조 세계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는 그에 따른 대가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른 바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먹습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의 결과 만 들고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가 되어져 부

매랑처럼 날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심고, 헌신 하여 의의 열매, 기쁨의 열 매를 다 거두어야겠습니다.

제목: 성실히 행하여 복을 누리는
성경: 잠언 28장 20절 찬송가 95장

본문의 핵심은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신의 의무 에 성실한 자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 해 묵묵히 일하는 자입니다. 반면 속히 부하고 자 하는 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그 목적을 위 해 성실히 일하기보다는 부정직한 행동을 일삼 는 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 의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부당하지 않고 정직하게 벌여 하나님 나라를 위 해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차별을 넘은 사랑
성경: 잠언 28장 21절 찬송가 620장

본문의 숨은 뜻은 숨은 뜻은 사람을 차별 대 우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들은 흔히 지연, 학연, 혈연,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나타내기 쉽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자랑하기 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진 것 을 주변에 약자와 나눌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 체, 함께 성숙하는 공동체로 한발 더 나아 가 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목: 악한 눈은 징벌로
성경: 잠언 28장 22절 찬송가 515장

본문의 문자적인 뜻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서두르는 자는 악한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 다. 부자가 되려는 자가 수반하는 특징은 인색 하며 부정직한 수단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 다. 이런 자에게는 도리어 빈곤의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눈이 빈궁에 이르게 한다면 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눈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에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에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아침보다 경책을 할 때
성경: 잠언 28장 23절 찬송가 468장

아침하는 허는 잠시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 고 경책은 건설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리스 도인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야단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진실을 선포 해야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달콤함은 순간 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이를 섞게 합니 다. 보약은 쓰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남을 살리기도 하 며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영혼들에게 보약과 같이 살리는 생명의 복된 언어를 담고

사시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께 사랑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내 부모를 공경하여
성경: 잠언 28장 24절 찬송가 556장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역시 고집 과 횡포까지 부러가며 부모 재산을 자기 소유 로 돌리는 악한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 경은 곳곳에서 부모공경에 관해 무게 있는 권 면을 배풀고 있습니다.(막 7:11-13, 딤후 5:4-8) 세상이 약해짐에 따라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낳아 주신 부 도님을 공경해야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잃어 그 치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경: 잠언 28장 25절 찬송가 542장

본문은 욕심이 많은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코너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후 4:4-7)

먼저 복음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따라 다르 게 해당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곧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본질 이 불변하는 복음에 대해 처음 구원 받게 된 그 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의 빛으로 깨닫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며 하늘의 신령 한 은사, 능력, 말씀 등으로 충만케 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일반은총적인 것들을 원하는 대로 기도하여 받게 하심이 은혜복음의 빛을 받 는 자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 차원인 영광의 복 음은 고난과 환난역경을 주시어 하늘나라 영광 을 더하게 하시는 복된 역사를 말합니다. 이는 장성한 신앙수준에 이른 자들에게 해당됨은 물 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으면 어 떻게 바뀌어 질까요? 뱀전 4:13-14, 16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왜? 주 재림 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기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 늘 영광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복이요. 그래서 고난당하 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곧 영광 의 복음의 빛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 다.

그러면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 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지요. 즉 부활의 영광이요(마 17:1이하). 이 부 활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 되고 자신에게도 해당

자를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항상 다투며 따라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 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 질적인 풍성한 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마음 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되기 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 를 따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목: 내 마음보다 하나님 편에서
성경: 잠언 28장 26절 찬송가 85장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과 속임수로 가득합 니다. 그 마음을 믿는 자는 세상의 위험에서 구 조를 받지 못할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 혼을 파멸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위험을 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 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경험, 내 생 각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묵상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 아가야겠습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개혁총회 부총회장



교단 및 노회 탈퇴 공고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탈퇴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 및 대전노회를 2015년 4월 16일자로 탈 퇴하였음을 이에 공고합 니다.

나누리교회 송세진 장로 외 성도일동

강원도 고성지역 교회임대 매매

토지 243평 건평(철골조)
1층 30평 2층 30평(60평)
매매가 (2억9천만 원)
임대, 전세(9천만 원)

성물무상양도함, 용도, 주택 교회, 선교원, 기도원 (개혁교회, 은퇴를 앞둔 목사님 유호) 주변 환경, 국회의정연수원 착공지역 (현시공중) 도학초등학교 옆 보건소 앞 뒤 소나무산... (아름다운자연경관과 공기 좋은 청정지역)

“단, 사명이 있는 후임자도 환영합니다.”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속초15분소요)

연락처 : 010-7353-0167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열 목사

- 한국예측상징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속박하고 뛰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스관절 병생지방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부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교회암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안예수교
당 로 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원동)
☎ 053-752-8238 010-8537-8291

예장(예복)총회 임원

총회장



박영민 목사

본 교단은

2014년 5월에 설립된 신생 교단으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에
가입된 건전한 교단입니다.

총무



임태욱 목사

서기



장만현 목사

회의록 서기



조충만 목사

회계



최겸욱 목사

간사



김영명 전도사

총회 가입문의: (간사) 010-6778-0651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인천 남구 능해길5 등불교회

“장한국 목사, 필리핀 민다나오에 복음의 빛을”

선교의 불모지 민다나오에 최초로 진리의 빛 생명의 광채를 발하다

진달래가 滿開하고 대지위로 힘있게 푸른 순을 내뿜는 양춘화기의 4월의 싱그러움을 안고 세부행 비행기에 탑승한 주사랑교회 선교단 일행 6명(장한국 목사, 박인숙 사모, 장정훈 강도사, 김진원 집사, 표옥자 집사, 최재분 집사)들은 인천공항을 이륙, 꼬박 4시간을 비행하여 밤 12시(한국시간 1시경)가 넘어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30℃가 넘는 무더위로 힘들지만 열을 잃는 선교여정은 시작되었다. 선교단 일행은 공항에서 3시간 정도 쉬었다가 민다나오 북부 제일도시 부투안시를 향해 항공편으로 이륙했다. 선교단 일행은 민다나오의 북쪽지방인 부투안시(Butuan City)와 세부 북쪽지역인 보고시(Bogo City)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1년 전부터 성경의 깊은 진리를 사모하여 집회를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것이 지난 4월 6일에 선교의 불모지 민다나오를 찾았다.

특히 민다나오는 최근 많은 기독교인들과 수십 명의 군인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분쟁 위험지역이었고, 한국인은 물론 모든 외국인들은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위험지역이기도 하다.



장 한국 목사

하지만 그곳 목회자들의 간청과 집회 요청을 받아들인 장한국 목사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의 주관자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선교 집회를 강행했다.

성령의 불이 임한 부투안시 민다나오, 이구동성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며 고백

부투안시는 민다나오 섬의 북쪽지방에 위치한 인구 40만여 명의 북부 제1 행정도시이다. 민다나오는 전체 인구 2,700만여 명의 넓은 지역이며 원래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로서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면서 카톨릭이 들어와서 지금껏 이슬람과 기독교 간

의 종교분쟁이 심한지역이며, 현재는 중무장한 반란군까지 합세하여 수리가오(Surigao) 등의 남부지역은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지구이다.

부투안은 북쪽에 위치하여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지만 하지만 늘 긴장해야 하고 안심할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집회 및 숙박을 겸한 모든 숙박과 집회는 '빅대디 컨벤션센터(Big daddy convention center)'에서만 진행되었고, 선교단 일행은 건물 밖으로는 출입을 삼가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Holy week(한국의 고난주간 및 부활절 기간)에 부투안 근방 수리가오에서 현지 목사 1명을 포함한 군인 등 3명이 살해를 당했고, 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되어 더욱 긴장이 고조되었다.

외국인들을 보면 테러를 가하고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한다. 하여 민다나오에서는 외국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복음 전리의 선교집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욱 말씀을 갈망하여 전리의 집회가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터였다고 한다.

이날 점심식사 후 1시부터 집회가 시작되고, 이미 목사들이 모여들었고 시작 때는 76명이 되었다. 민다나오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외부, 외국으로부터의 세미나 집회 등이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강사로 나선 장한국 목사는 'A STUDY ON GENESIS(1)'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영어로 직강을 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느 선교집회보다 더욱 집중하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습이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성경을 새롭게 깊은 진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했다.

'빛이 있으라' (창 1:3) 이 빛이 피조물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임을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크게 떠지며 기뻐했고, 예멘동산이 여기 교회의 원형이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과 네 강의 진리 특성 등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환호하는 모습이였다.

물론 그들은 그간 살아왔던 환란 전 휴거나 또는 아예 환란과 무관하게 무천년주의설 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 24:21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과 29월에 이환란 후에 인자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환란이 끝난 후이며 휴거도 그때 있음을 강조했다.

교로 7년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라고 증거 했다. 그러나 부투안의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일시적이나마 마음 문을 닫듯이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기까지 했었으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 깊게 조명, 계속 감동 감화가 증대했다.

금번 이들에게는 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역사와 오늘날 자신들에게 친히 적용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고 했고, 또는 아담의 타락과 구속의 드라마틱한 구원 진리, 가인과 아벨의 제단생활과 우리 자신들과의 비교, 노아방주와 오늘날 심령방주 짓는 진리 등으로 비록 창세기 연구 범위를 벗어나 종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고 오묘한 성서적 영적인 진리세계를 탐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고백을 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에 감탄치 아니할 수 없는 세미나였다고 말하는 장한국 목사는 감화가 깊다고 말하고, 또는 선교사역에서 기도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단원 모두가 경험하는 영광을 안았다. 선교 일선에서 사역하는 장한국 목사와 선교단원 일행들,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는 후방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똑같이 임하리라(전쟁의 노획물을 똑같이 나누듯).

이렇게 해서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한 강론은 5시가 지나서야 끝이 났고, 집회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그들은 집의, 응답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동안 깨닫지 못해 답답한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결 받는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감사를 표하며 책의 저자인 장한국 목사의 사인 받기를 원하기도 하여 일일이 진리를 담은 책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다나오 목회자들의 리더인 레기, 준, 랑메스 등 세 목사는 특별하게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창세기 속에 이렇게 큰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더라 큰 도전과 충



▲ 부투안 목회자대표들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감사 장한국 목사

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 목사인 내게 빠른 시일 내에 성경 세미나가 재개되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수강했던 모든 분들이 "Will you come back again" 하며 재 초청을 입모아 외쳤고 또한 강의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패를 '주해적이고 신학적 진리탐구'했다'는 내용을 담아 감사목사에게 전달하기까지 했다.

보고시를 성경의 깊은 진리로 뜨겁게 달군 예언의 말씀 성령의 역사

선교 제 3일째 4월 8일 수요일은 민다나오를 출발 세부공항으로 또다시 돌아와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북쪽으로 계속 달려 2차 집회 장소인 보고시에 밤늦게 도착했다. 역시 이 보고시도 민다나오 부투안과 영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외부나 외국으로부터의 집회 등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다. 이곳의 첫인상은 거리가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조용하고 소박한 한국의 읍내 수준의 도시처럼 보였다.

하루가 지난 9일(목) 오전 9시부터 집회가 시작되고, 숙소인 노스홈 펜션 하우스(North Home Pension House)에 세미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감사로 나선 장 목사는 강론에 있어 큰 불편함이 없었다. 이곳의 목회자들과 참석자들도 역시 아침 일찍 8시부터 나와 교제를 나누며 준비하고 있었고 강의 듣는 데에서도 성경의 깊은 진리와 이 때에 따른 예언의 말씀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공부에 열중했다.

보고시의 리더인 닉 목사 외 목회자들은 참 순수했고 50여명의 목회자들은 어려운 진리인 창세기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선 척척 받아들였다. 8시간여의 장시간 강론을 해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청종하며 마치 바짝 마른 땅이

한 방울의 빗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하게 빠른 시일 내에 성경 세미나가 재개되기를 요청하였다.

강론 중에 장한국 목사는 질문하기를 '여러분은 순교자의 영광을 사모하는가?' 물었을 때 모두 큰 목소리로 'Yes'라고 화답하였다. 또 '여러분은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 여러분은 philippino인가? 아니면 foreigner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잘못 대답은 했지만 곧바로 가르쳐준 말씀대로 즉각 사상을 바로 잡는 것을 보니 너무도 순수하기 짝이 없었다.

죽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은 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필리핀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얹힌바 된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고친 것이었다.

"None of what I taught you is my opinion. It is the truth, which is based on only Bible and the Holy Spirit that have made me inspire long time ago" 라고 내가 말했다를 때 그들은 일제히 "Amen, Amen" 했다.

2015년 필리핀 선교사역을 통해 처음 방문으로 최초로 진리의 광채를 받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부투안과 보고시의 목회자들이 받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들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성경의 깊은 진리와 이 때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 필리핀을 넘어 전 세계에 이와 똑같이 진리의 빛으로 비쳐지게 되기를 소원했다. 아울러 이전 필리핀 민다나오와 부투안과 보고시의 선교활동을 통해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광채를 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청종하며 마치 바짝 마른 땅이



▲ 부투안시에서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



▲ 보고시에서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



▲ 부투안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 보고시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지저스타임즈 신문 · JTNTV방송

전국 교회 5월 주일예배 안내

2015년 5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엢6:1~3)
문서선교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월만한물가교회

담임 김만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사)한국기독교개혁신학교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우성@상가202호
☎ (02)869-0166 Fax(02)869-0167 이사장 011-287-0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형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583-1955 H.P.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김신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한경총 중흥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중흥총회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아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 매일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관 부흥사회 주관)
◇ 매일 셋째 주(월-목) 정기집회
(지저스타임즈 안문부흥사협회 주관)
◇ 매일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관부흥사대표회 주관)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담임 김봉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경기도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01호
☎ (031)378-9349(FAX겸용), H.P. 010-2378-934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714-1426, 7236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석 목사(우울초)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응급환자-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이길6-1(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원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202호
☎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수요일 오후 8시

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비치 2단지 옆
☎ (02)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
3부 오후 1시
주일 밤 오후 6시3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담임 박형욱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화요일 화요일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 (02)593-39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훈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담임 황원찬 목사

2015표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7길 43(화양동)
☎ 교회(02)461-5975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담임 광명민 목사

◇ 예장(예)총회장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장부흥사관학교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본사사무장
(인천지사장, 연부흥사무총장)

인천시 남구 능해길5(송의1동)
☎ (032)891-0651, 010-2080-0651

경찰청 · 한국경목총회, 경기광주경찰서 위문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 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경기도 광주시 목동 소재 영광제일교회(담임목사 이기웅)에서 4월 20일(월) 오전 11시 제37-4차 임원회를 갖고 오후 2시 경기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 총경)를 위문했다.

한경총 사무총장 홍창표 목사는 교통체증으로 늦어지고 있는 총회장 김진수 목사를 대신, 환영사를 대독하고 1부 예배를 인도하여 부회장 김창룡 목사의 기도 후 부회장 이기웅 목사(영광제일교회)는

마24:45~46을 본문으로 "때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설교 중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가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동영상 보여주면서 탄식을 했다. 또한 모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화계사에 들어가 주일예배를 보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 폭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동원해 절에 들어가 불상 앞에 절을 하게하고

불경을 외우게 한 동영상도 보여 주면서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 성도들을 보면서 목이 매여 말을 잊지 못했다.

게다가 서울 모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모 지주가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고 함께한 목사들과 예배를 인도하는 등 하나님을 떠난 배도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폭속들이 아닐 수 없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

자며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했다.

이어 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이은규 유재욱 목사를 경목위원으로 위촉하고 박용숙 목사가 특별찬양을 했다. 아울러 사무총장 홍창표 목사가 강사로 경목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의장 김진수 목사의 사회로 2부 회의가 진행되어 주요 안건 중에는 제38차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 등을 선정하고 정관계위원회를 임원회에 위임했다. 이어 사무총장의 광고 후 증경회장 허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제일영광교회 이기웅 목사와 성도들의 정성어린 중식을 위해 최용진 목사의 오찬기도로 축복했다.

이어서 한국경찰청 경목총회 일행은 오후 2시 경기광주경찰서 서장 윤성태 총경의 초청으로 접견하여 한경총 총회장 김진수 목사의 인사와 격려사가 있었으며, 서장 윤성태 총경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또한 관내에 있는 경찰들과 전경 등을 격려하는 등 덕담을 나누고 기념촬영한 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목총회 총회장 김진수 목사와 임원들이 서울남부구치소를 위문하는 등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한교연 주최 한국목회자 탁구대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주최한 제 1회 한국교회 목회자 탁구대회가 지난 20일 오산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열려 스포츠를 통한 교단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예장 통합, 합동, 기성, 기감 등 6개 교단 200여 명의 목회자가 선수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개인우승은 5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김정석 목사(통합)가, 교단별 단체전 우승은 예장 합동이 각각 차지했다.

최귀수 목사(선교교육국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임은빈 목사(한교연 법인이사)는 설교를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대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회이며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대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태식 목사(스포츠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식은 양병희 대표회장의 대회사와 박상오 안산시장의 환영사, 박요한 목사의 격려사, 원종문 목사 유남규 감독의 축사, 내빈인사와 선수선서, 개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김준규 사무총장이 대신 읽는 대회사로 통해 "한국 목회자 탁구대회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탁구를 통해 소통하고



일치하는 뜻이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박요한 목사(한교연 법인이사)는 "한국교회가 단결하는 모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히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축사를 전한 원종문 목사(공동회장)는 "탁구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운동이지만 모두를 어울리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데 큰 유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88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전 국가대표 감독이 참석해 간증을 겸한 축사를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유 감독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면서 "모든 영광과 감격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

음을 고백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남규 감독은 "내년 대회에는 직접 대회 참가 목사님과 번의 경기를 하며 자신의 기술을 조금이나마 전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해 큰 박수와 호응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수상내용
 <교단별 단체전> / 우승: 합동, 준우승: 통합, 공동3위: 기성 기감

<개인전> / 우승: 김정래 목사(통합), 준우승: 배영찬 목사(합동), 공동3위: 변길원 박진실 목사, 5위: 고봉수 목사 6위: 이근철 목사 7위: 최인해 목사 8위: 김영달 목사

<시도별 단체전> / 우승: 경기, 준우승: 서울, 공동 3위: 대전 <복식> / 우승: 이근철 목사 문무군 목사, 준우승: 김권일 목사 우병상 목사, 공동 3위: 김낙문 목사 김세광 목사, 최경운 목사 임기석 목사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예술축제

2015년 4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나눔협버오케스트라, 팝카펠라 원달라, 용인콧합창단 등 장애예술가들의 공연 다채롭게 펼쳐져, 국내 장애인, 관람자 600 여명 참여(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공열)는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의 활동에 대한 홍보와 그 역할을 알리고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장애인예술축제를 개최했다.

공연에 앞서 '임실품물농악'의 오프닝으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

는 새누리당 김성록 국회의원과 이상일 국회의원의 축사와 나경원 국회의원의 영상메세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김양수 회장, 새누리당 동작갑 위원장 박기성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순서로 35명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 "나눔협버오케스트라"의 'Funiculi Funicula - L.Denza', 'Over the rainbow', 'Radetzky March - J Strauss' 공연과 2014전국장애인합창대회의 대상팀인 "용인콧합창단"의 '무궁화 외',

'다함께 고향의 봄'으로 웅장하고 멋진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전통무용 '자연의 소리'를 보여준 자폐성발달장애어린이들로 구성된 "하늘나무무용단"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난타팀의 '진동'이 감격하고 신명난 무대를 꾸몄으며, 국내 유일의 코보드 연주 임일섭씨의 '사람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심금을 울리는 공연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즐거운 것이 아름다운 것 이라는 모토로 시립합창단 출신의 성악가 5명으로 구성된 팝카펠라 "원달라"의 축하공연과 동작LIFE 색소폰 팀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시계바늘', '연가 외' 공연이 있었다.

장애인에게 생활속에 예술성과 감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며, 장애인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기회를 마련코자 장애인의날을

기념해 축제를 기획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본 공연을 통해 장애인 문화의 다양성을 표출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을 알리는 축제에 참여했다. 본 공연은 사랑의 열매,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 캠브리지대학 웨슬리하우스 국제이사 위촉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지난 4월 13~15일, 영국 웨슬리 하우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국제이사로 위촉되었다. 웨슬리 하우스는 캠브리지 대학에 소속된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1921년 창립되었으며 1972년부터 캠브리지 대학 내에 있는 타교과 신학대학과 교류하는 영국의 명문 신학대학이다. 국제이사회의 GAB(Global Advisory Board)는 광림교회 담임목사인 김정석 목사를 비롯하여 런던 웨슬리 채플의 담임목사이자 영국 상원의원인 Leslie Griffiths 목사, 케냐 감리교회의 Joseph Ntombura 감독, 싱가포르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Ngoei Foong Nghian 총장, 미국 UMC GBHE 총무 Amos Nascimento 목

사, WMC 의 회장을 지낸 영국의 John Barrett 목사, 미국 예모리 대학 캔들러 신학원의 학장을 지냈으며, 짐바브웨 아프리카 대학의 이사인 James Waits 박사도 구성되어 있다. 웨슬리 하우스는 글로벌 시대에 웨슬리 신학을 세계화하고, 미래 목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위 7명을 국제 이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첫날은 캠브리지의 상징인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진행됐고 웨슬리 하우스에 대한 설명과 학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둘째날엔 캠브리지의 신학관인 Westcott House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영국 감리교회 총회장, 사무총장, 웨슬리 하우스의 등

다. 글로벌 처치를 섬기기 위한 웨슬리 하우스의 여러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어 웨슬리 하우스의 학장인 Jane Leach 박사는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발표하며 실제적인 목회 교육을 하는 신학교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석 목사는 아시아 교회 및 신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제안했으며, 웨슬리의 영적 유산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 후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방문해 존과 찰스 웨슬리의 친필 서신과 수첩 등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웨슬리 하우스의 채플에서 성만찬식이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영국 감리교회 총회장, 사무총장, 웨슬리 하우스의 등



문 및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관련 교수 약 40명의 참석했으며,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석 목사는 웨슬리 하우스를 위한 특별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국제 이사회의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는 한국 신학은 대단한 발전을 이뤄왔으며, 목회적인 부분에서도 세계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이번 김정석 목사의 이사회 위촉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진우 목사 2013년-2015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경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10 성산교회(신승준 목사)
 15-19 선교지신학교(여명숙 목사)
 21-27 여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세계영교회(정희자 목사)
 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원(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19-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신교위원회(이영재 원장)
 7 대안미디어(이영재 원장)
 7-9 별빛교회
 14-15 장기교회
 17 부흥사역연구원(김영관 원장)
 20 천보산기도원
 21-23 인천신산교회
 27 선교사파송(이영재 원장)
 28-30 관음장교회

2013년 11월
 4-9 선교지(이영재 원장)
 11-13 형복교회(박성일 목사)
 18-20 창원교회(최준원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 서경교회(김정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여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여복교회)
 16-18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수복을교회(안영명 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현철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장침례교회
 17 한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장기교회

2014년 2월
 3-6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2 인천신산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명림교회
 21 감림산기도원 금요침례(이영재 원장)
 23 성회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불철 축복대신방

원천교회(최정근 목사)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4월
 7-10 광신수원(이영재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박성일 목사)
 21-22 장기교회
 26-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14 나눔교회(최정근 목사)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섬애성회(여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3 선교사역준비나
 16-19 별빛교회(정희자 목사)
 23-27 선교지(이영재 원장)

2014년 7월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여복교회(이영재 원장)
 여복교회(이영재 원장)
 여복교회(이영재 원장)

2014년 8월
 불철 축복대신방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4년 9월
 1-2 중부지역 연합성회
 3 성산(이영재 원장)
 5-17 성산(이영재 원장)
 22 은혜교회(유경재 목사)
 25-28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29-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선교지(이영재 원장)

2014년 10월
 6-8 천주성경교회(이성현 목사)
 12 성회교회(이영재 원장)
 13-14 장기교회
 15-18 천주성경교회(이성현 목사)
 20-23 인천신산교회(김정수 목사)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7-29 여복교회(이영재 원장)

2014년 11월
 3-6 여수서원교회(이영재 원장)
 10-14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17-19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포천교회(이영재 원장)

2014년 12월
 1-3 성회교회
 7-10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8 장기교회
 15-19 별빛교회(정희자 목사)

2015년 1월
 21-2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신년축복을 위한 산성기도

2015년 1월
 2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4 안양교회(이영재 원장)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1 오현교회(이영재 원장)
 12-14 은양교회(이영재 원장)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25-28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31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2015년 2월
 2-5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9-11 원천교회(최정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이영재 원장)

2015년 3월
 불철 축복대신방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6-10 선교지(이영재 원장)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장기교회
 19-25 삼아교회(이영재 원장)
 27-29 능곡명성교회(송현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유경재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20 불철부흥성회(여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015년 6월
 1-3 진접교회(송일목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희 목사)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인선 원장)
 13-16 김해배달수원(이순자 원장)
 20-23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7-30 여복교회(이영재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17-20 감림산(김성기)도원(이영재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복교회

지저스타임즈 15-2차 이사회 및 언론협 월례회 개최

오는 6월 5일 이사장 이·취임식 및 신임이사 지사장 임명식 예정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대표 이사 정기남 목사는 지난 4월 24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 예복교회(담임 소진우 목사) 대성전에서 전국 지사장 및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2차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 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기도회를 가졌다.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예복교회 총회장)의 기도, 운영이사 김동주 목사(오산지사장)의 성경봉독(행1:8절), 꾸미오리 기독교무단, 로템나무색소폰 연주

단의 특별무대에 이어 수석상임이사 박형취 목사(성현교회)는 "예수의 증인이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아울러 오직예수찬양선교단의 봉헌찬양을, 박용숙 목사(상임이사)가 봉헌기도를, 본지 이사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정기남 대표이사는 제3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6월5일(금) 오전 11시 인천 영광교회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수석상임이사 및 신임 지사장, 신임이사를 임명 한다고 밝히고, 내빈을 비롯해 참

석자들을 소개하고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예복교회 총회장)의 광고가 있었다.

2부 특별기도회에서 ① 신문구독자와 JTNTV 방송 발전을 위하여 헌신(목사(자문)), ② 문서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박민규 목사(개혁총회교회), ③ 해외



조강수 목사
본지 이사장 (영광교회)

30개국 지사 및 전국 28개 지사와 미국 제휴사를(미주타임즈 MijuTimes)위하여 곡에스터 목사(부사장 및 상임회장), 국가의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광영민 목사(사무국장 및 사무총장), 사장 소진우 목사가 시무하는 예복교회와 회원가정을 위하여 박한규 목사(상임고문 및 자문), 등이 각각 기도한 후 이규필 목사(부이사장/상임총재 합동보수총회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3부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상임대표)의 사회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조강수 목사를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음을 밝히고 이사장 조강수 목사(대표회장)의 인사말씀에서 본사와 JTNTV방송을 통한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로서 운영하는데 힘써 후원하고 사역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경의를 위한 보고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 추대하고, 언론부흥사협의 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를 갖고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예장(예복)총회 인천노회 제2회 정기노회 열어

예장(예복)총회 인천노회(노회장: 임태우 목사)는 지난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소재 예수사랑교회(담임: 최금용 목사)에서 "제2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동 노회 장만천 목사가 제2대 노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노회장 임태우 목사의 진행으로 1부 예배가 드려지고 인회식에 이어 2부 성찬예식, 3부 회무처리, 4부 애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회장 임태우 목사는 요15: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노회장이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노회원들이 잘 믿고, 따라주어서 감사하며 인사하고 설교를 마친 후 인회식에서 김영애씨를 전도사로,

김성기씨를 준목으로 각각 인회했다.

2부 성찬찬식은 부노회장 장만천 목사가 집례를, 3부 회무처리에 신임회원 가입 및 임원선거에서 노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고 신·구임원 교체에 이루어졌다.

인천노회 제2대 노회장 장만천 목사, 서기 최금용 목사가 선출되고 이 외의임원은 유임되었다. 이어 회무처리에서 회원 영입과 총회가 성장되고 확장하는데 개인개인이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인천노회 제2회 정기 노회가 폐회예배를 끝으로 다음회기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신임노회장 장만천 목사는 시37:4-7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맡겨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노회를 마친 후 부천 '자연생태공원'을 찾아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단합된 모습에 감사했다.

신임 노회장 취임식은 다음 달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할 것을 결의하고, 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노회원들에게 신생교단이며, 회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회원들께서 예복총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주시며 감사하다고 전하며, 작지만 아름답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교단과 노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교단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전도사, 준목들 한분한분이 세워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 광영민 기자

개혁, 대한노회 제14회 춘계노회 가져

말세에 자칭 그리스도인은 사단의회인 WCC요 종교다원주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4월 14일(화)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소재 새생명교회(박민규 목사)에서 대한노회 제14회 춘계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등 노회발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1부예배가 시작되고 김정미 목사(새에루살렘교회)의 기도와 최순란 목사(주경령교회)의 성경봉독(계시록 2:8~11절)하고, 회계 유순숙 목사(조예교정선교회)의 특별찬양이

있을 후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내가 네 공물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노회장 장 목사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즉 부활체, 영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셨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광을 임해주시는 주님으로 보여 주셨다. 그리고 말세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회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종교 다원화를 주장한다. 즉 이슬람,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종교 다원주의는 바로 사단의 회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시대는 종교 통합을 앞세워서 모든 종교는 하나이며 종교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 사단의회, WCC가 바로 종교통합 다원주의의 사단의 회라고 전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질서 순리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순리대로 살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합법화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릇되게 하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PCUSA 즉 미국장로교 연합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결의를 본 것이다. PCUSA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서 목사가 교



회에서 동성애자를 위하여 주례를 보는 등 그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바로 사단의회이다.

그러면서 장한국 노회장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최고의 면류관은 금면류관인데 이를 순교자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영원히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생명의 관이다.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복락을 하게 되리라고 했다. 둘째 해를 받지 아니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아닌 순교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다.

2부 성찬식예식과 3부 회무처리가 진행되고 4부 폐회예배 순으로 예장개혁총회 대한노회 제14회 춘계 정기노회를 마쳤다.

한편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비롯 노회원 일동은 백호포병대 육군 000부대를 방문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사단장의 초청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종진 목사 5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odless377@gmail.com

- | | | |
|--|---|--|
| 1(금) 오전 3(주)~6(수) 3(주) 오후 7(월) 오전 10(주) 오후 10(주) 저녁 11(월) 오전 11(월)~13(수) 12(월)~13(수) | (국제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윤보환 목사) 서울 오래내교회(오석규 목사) ☎021307-6541 서울 글로벌복음교회(이재라 목사) ☎010-4870-7572 한영신학대학교(총장 이영복 목사) ☎0212067-4500 서울 반영교회(전해동 목사) ☎021491-6907 일산 능력교회(지미숙 목사) ☎010-6366-2548 연세대 총동문목회자총협의회, 제주대 제190차 해외성회(190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NC 해외합동총회(Henderson C. University) 미국(U.S.A) NC 실로암교회(김태선 목사) 연합성회 ☎9101484-1566 미국(U.S.A) NC Faith University 대학성회 미국(U.S.A) 메릴랜드 소양교회 ☎267575-5617 미국(U.S.A) 메릴랜드 세계로장로교회(이영환 목사) ☎301916-6108 미국(U.S.A) 백악관 초청 행사(Hyepinim) 19(월)~20(수) 21(목)~23(토) 25(월)~27(수) 26(화) 오전 29(금) 저녁 30(토) 오후 | (제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윤보환 목사) 서울 오래내교회(오석규 목사) ☎021307-6541 서울 글로벌복음교회(이재라 목사) ☎010-4870-7572 한영신학대학교(총장 이영복 목사) ☎0212067-4500 서울 반영교회(전해동 목사) ☎021491-6907 일산 능력교회(지미숙 목사) ☎010-6366-2548 연세대 총동문목회자총협의회, 제주대 제190차 해외성회(190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NC 해외합동총회(Henderson C. University) 미국(U.S.A) NC 실로암교회(김태선 목사) 연합성회 ☎9101484-1566 미국(U.S.A) NC Faith University 대학성회 미국(U.S.A) 메릴랜드 소양교회 ☎267575-5617 미국(U.S.A) 메릴랜드 세계로장로교회(이영환 목사) ☎301916-6108 미국(U.S.A) 백악관 초청 행사(Hyepinim) 19(월)~20(수) 21(목)~23(토) 25(월)~27(수) 26(화) 오전 29(금) 저녁 30(토) 오후 |
|--|---|--|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의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의는 본 신문방송 단체이며 취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원 및 개 교회, 농어촌 오지에 이르기까지 신청하시는 교회를 찾아가 지역복음화를 위해 집회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본 단체는 총재 이효은 목사를 중심으로 전전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벌써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의회의에 뜻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부흥사로 같이 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합니다.

총재	대표회장	연수원장																
																		
이효은 목사 (화성총회교회)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박형취 목사 (성현교회)	황원찬 목사 (대신석수총회장)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정기남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정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곽동훈 목사 (대신총회 부총회장)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홍현표 목사 (경목총회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예복총회사 대표회장)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성교회)	이범성 목사 (한가보령 대표회장)	박한규 목사 (수도권 은목교회)		
자문	자문	자문	자문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서기	회계
																		
허식 목사 (경목총회 중경회장)	박양우 목사 (경목총회 서기)	서영웅 목사 (유리탄장로회 총회장)	최순길 목사 (수도권교회)	박동호 목사 (별명교회)	최낙현 목사 (신성그리스도교회)	곽에스터 목사 (국제금성도원 회장)	박용숙 목사 (주성령각성교회)	임해숙 목사 (수원법륜교회)	김동주 목사 (오산반석교회)	김종현 목사 (군산지사장)	이기환 목사	주은총 목사	박종만 목사 (취재부장)	김부경 목사 (운영이사)	송미순 목사 (운영이사)	양미상 목사 (해스코 G-이루 대표)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